

마건충의 동행삼록

- * 동행초록, 동행속록에 이어 마건충이 1882년 임오군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조선을 방문하고 쓴 보고서: 임오군란 중 이하응 납치 및 조선과 일본의 배상교섭의 막후 역할에 관한 기록 → ~~1897년 소방근재여지총초보편에 출간; 중국과학원이 1882년 9월 23일 이후의 기록까지 지닌 완본을 보관하고 있고 사조선록에는 9월 23일 이후의 기록은 없음~~
- * 1882년 조선에 난당이 생겨서(임오군란) 정여창과 함께 위원함, 초용함, 양위함 등을 타고 인천으로 들어옴
- * 마건충이 인천(바다?)에 들어 온 후 당시 교리였던 어윤중은 마건충에게 대원군이 월권하고 충신을 죽이며 척화하려 한다고 고함
 - 매우 시급을 요하므로 신속히 군대를 파견하여 조심스럽게 왕경에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현재 대원군이 집권중이고 일본이 군함을 이끌고 올 것을 우려함
 - 일본이 먼저 와서 난을 평정하면 속국의 마음이 갑자기 차가워져서 번복藩服이 쇠약해질 수 있어 중국의 위신이 조금 손상됨
 - 매우 절박한 형태로 서신을 씀
- * 일본 대리공사 하나부사가 일본군을 이끌고 제물포에 상륙하자, 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보복을 우려하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조선측 인물과 접촉하고 일본과도 접촉하여 동정을 지속적으로 살핌
- * 서울로 들어가려는 다케조에 서기관과 마건충의 대화
 - 다케조에: 일본은 전쟁을 원치 않으며 폭동의 수괴를 처단하고 속히 가서 배상문제를 해결하려 함; 일본은 정한론이 일어날 정도로 민심이 격앙되어 있어 이를 달래야 함
 - 마건충: 배상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조선의 재정이 고갈되어 염려된다고 하고, 일본에 대한 위로금은 가능한 이야기지만 군사비용에 대한 배상은 무리라고 주장; 가능하면 너무 조급하게 처리하지는 말자고 주장; 조선 신료와 백성이 피해를 일본정부에 보고하여 조선의 왕비나 신료 역시 폭도에 의한 피해가 심하다는 것을 알면 일본의 민심이 수습될 것이라고 의견 개진
 - 마건충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나친 배상 요구를 우려함
- * 어윤중, 조영하, 김홍집(김굉집) 등이 주로 마건충을 상대하면서 조선 조정과 연락함
- * 이미 하나부사 대리공사는 한성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 주둔하여 조선관리와 접촉을 시작함
- * 청군은 일본과 섞이지 않게 제물포가 아닌 남양만으로 해서 조선에 상륙하고자 빈번히 이 지역의 해안을 측정함(마산항으로 해서 상륙; 남양만 근처의 마산항인듯?)
- * 조선으로 오기 이전 마건충이 요청한 추가병력이 남양만 일대에 도착함(위원함, 일신, 태

안, 진동, 공복 등의 군함이 도착함) -> 장진수에게 요청한 오소현(오장경) 군문도 병력을 이끌고 도착함

* 마건충은 남양만에 상륙한 이후 흥선대원군으로부터 하나부사의 요구사항을 적고 속히 와서 해결해 달라는 편지를 받고 서울로 속히 가고자 함

* 흥선대원군은 하나부사와의 협상에서 매우 완강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임 -> 하나부사가 협상을 결렬시키고(?) 한강을 건너서 제물포로 향함

* 서울 인근에서 대원군과 마건충이 만남; 하나부사와 마건충도 만남

* 하나부사는 조선 고종이 자신의 7가지 요구에 대해 사흘 안에 대답하라는 기한을 어겼다고 비난함; 이에 대해서 마건충은 고종이 아무런 전권이 없으므로 그와의 협상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함

* 마건충은 이후 흥선대원군과의 필담에서 황제의 책봉을 받은 고종을 무시하고 권력을 장악한 것은 황제를 경시한 것이라고 하며 천진에 가서 청조정의 처치를 받으라고 주장 -> 일단 흥선대원군을 압류함

* 호조판서 김병국이 일조의정조약의 조약문을 가지고 와서 마건충의 의견을 물음: 7개 관(조)로 구성되어 있음 -> 7관(실제로는 6개조?)

- 일조의정조약

1. 난당 처벌
2. 일인 희생자에 대한 후한 장례
3. 희생자 위로금
4. 출동 일본군 군사비용 지불
5. 일본공사에 병력배치
6. 일본에 사신통해 사과

- 일조의정속약

1. 원산, 부산, 인천의 다니는 거리 확장.
2. 일본의 공사, 영사, 가족 수행원의 자유로운 통행 및 호송 보장, 양화진을 1년 뒤 시장으로 개장

* 마건충의 의견: 허락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융통성을 발휘할 문제를 구분함

1) 1, 2, 3, 4조는 문제 없음

2) 길을 크게 내는 문제 -> 5조 조선의 민심을 고려하여 수년 뒤에 실시; 함흥, 대구는 시장 개설 말아야 함; 양화진은 서울에 가까워서 통상을 허락하면 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음; 6조 공사의 자유로운 이동은 국제법에 보장되지만 군란 이후 위협할 수 있으니 지방관에게 먼저 통지하는 것이 좋음; 7조 서울에 장기간 병력이 주둔해서는 안 된다(일본군? 혹은 조선군? 문맥상 조선군으로 보임); 조문 안에 넣지 말라; 일본에 대한 조선의 사과사

절단 방일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국서를 지니고 조선국왕에게 바쳐 왕비와 재상 등 신료가 당한 재난을 위문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

* 청은 일본의 요구에 대해서 조선의 종주국으로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함
-> 군사비용 깎고 대구, 함흥 시장 개설 반대하는 등 다양한 견제의견을 제시함

* 군사비용에 대해서 김홍집이 묻자 마건충은 위로금 5만에 군사비용은 10만 정도면 된다고 의견을 개진함; 양화진에 대해서 다시 묻자 양화진은 인천과 사실상 지리적으로 가깝고 같은 지역이니 개항도 된다고 이야기함

* 일본과 조선 간의 외교를 중재하는 것을 주로 청의 역할로 하자는 소수(군인직함)의 주장도 있었으나, 마건충은 이는 고종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결국 흥선대원군을 돕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외교 이전에 먼저 흥선대원군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여 이를 관철함
-> “내란을 수괴를 압송하여 먼저 난을 진정시켜야 한다” -> 정여창이 대원군을 남양으로 압송하여 청으로 데려감

* 흥선대원군을 끝까지 법으로 벌하면 고종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조선에 두면 난당이 소생할 수 있어, 중국에 억류하여 안전하게 두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함

* (488) 마건충이 현대(상부기관)에게 바치는 보고서의 일부분 -> “...조선의 시국은 내환과 외우가 함께 시급하지만 외우의 발생이 내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내환을 제거하는 것이 외우보다 더 시급합니다. 그 국왕이 스스로 주관할 수 있도록 한 연후에, 일본 공사를 불러 전일의 일은 모두 난당의 소행으로 국왕은 조금도 죄를 지은 것이 없음을 알리게 하고, 이번에 상국의 힘으로 일과 권력을 바르게 되돌려 놓았으니 처음처럼 화호하여 요청한 각 조항을 함께 조용히 상의하기를 바란다고 이르게 하면, 명분이 이미 바르고 사리 역시 순리롭다 할 것입니다.” => 청은 청황제가 책봉한 고종의 권위를 되살리려는 명분을 강조(?) 혹은 일본의 요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선행 정치작업으로 난당의 재건을 막기 위해서 흥선을 압류? => 고종에 대한 보호, 청과 조선이 고종을 세운 질서를 회복하려 함? 책봉국-조공국 관계의 수복을 노림?

* 이후 마건충 등 청군은 왕심리와 이태리의 난당을 조직적으로 토벌함

* 김홍집이 가지고 온 최종 조일조약문은 마건충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이 크게 농락당한 것임; 배상금이 50만원으로 그대로 잔존; 그러나 대구, 함흥의 시장 설치는 막음; 일본의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遇事生風) 전술에 조선이 농락되었다고 개탄함

* (501) “조선의 종묘사직이 위태로웠다가 다시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간교한 음모가 숨겨져 거리낌 없이 펼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황상의 위엄과 중당의 위망, 및 진헌의 적절한 결단에 우러러 힘입어 이처럼 조그마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체적으로 청의 의도는 흥선대원군을 체포하고 고종의 권위를 복귀시켜 청이 책

봉한 조선의 질서를 회복하고, 일본을 견제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음 => 조선은 청이 조정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함)(?)

송례의 봉사조선일기

- * 봉사조선일기 - 정사 호부좌시랑 속창과 함께 고종의 어머니뻘인 조대비(헌종의 생모로 고종 초기 수렴청정)의 상을 맞아 1990년 조선에 온 청 호부우시랑 송례의 기행일지 -> 후일 1894년 소방근재여지총초보편에 출간(9월 23일 이후 조선에서의 활동이 누락되어 있음)
- * 조선 고부대신 정사 호조참판 홍영종이 정문을 들고 청의 예부에 이르러 조선의 재정이 피폐함을 이야기하고 중국의 사신단에 대한 대접이 소홀할까 걱정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함
- * 이에 청은 육로로 가면 가는 길마다 조선의 사신 접대비용이 많이 들 것을 고려하여 천진에서 인천으로 바로 가는 것을 결정함(청황제의 유지)
- * 청은 이에 선발절차를 거쳐서 정사와 부사를 선발하고 제사를 준비하며 제사에 드는 물품을 구비하도록 조선에 명함
- * 이와 함께 북양대신 이흥장에게도 함선(운선)을 준비하도록 지시함
- * 또한 청황제의 하사품이 향, 비단, 은량 및 의장품도 준비하고 수행원 등의 명단을 미리 인천부사를 통해서 전달함
- * 청의 사절단을 맞이할 조선의 인원 및 시설에 대해서도 자세한 언급이 있음 -> “국왕이 나가가 순행할 때의 의식 제도와 다르지 않게 하라”(525)
- * 고종이 직접 돈의문에서 영접하도록 함
- * 조선의 뜻에 따라 해로로 가는데 예절을 조금 면하게 해 달라는 조선의 요청은 거부함 -> “조금이라도 제멋대로 시행하거나 임시변통의 방법을 쓰도록 풀어줄 수 없다”(529)
- * 이후 천진에서 배를 타는 이야기 등이 기록됨